



"2023년 으랏차차~"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광주 금당산 정상에 찾은 시민들이 계묘년(癸卯年)에 떠오른 첫 태양을 맞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아시아 첫 도시문화교류사업 태국서 활짝

사회적 약자 위한 공부방 미술관 '뮤지움@태국' 오늘 종료 양국 청년예술가 작품·공연 공동작업...행사 후 뮤지움 기부

광주시가 첫 선을 보인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 사업'이 태국에서 꽃을 피웠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부방 미술관 프로젝트인 '뮤지움@태국'이 지난해 12월 16일 시작돼 2일까지 진행된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이 프로젝트는 광주시 최초의 문화 정책개발원조(ODA) 성격의 국제교류다.

뮤지움은 국내 예술가들이 이동형 컨테이너를 그래피티 등 다양한 작업으로 꾸민 움직이는 미술관이다. 아이들의 공부방, 어른들의 사랑방으로도 쓰이는 다목적 공간이기도 하다. '뮤지움@태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치앙마이 꽃 축제인 '차밍 치앙마이 플라워 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뮤지움 전시, 치앙마이대학 국제어학센터 공연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2.35m×6m×

2m' 크기의 컨테이너 4개를 '플라워 페스티벌' 현장 인근에 설치하고, 이상웅, 박기태, 서영실, 이재문, 김미지, 이현승, 최혁 등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 작가들이 태국 작가와 함께 현지 재료를 활용하고 공동작업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태국 현지의 관심을 집중하는데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광주의 젊은 연희패 '자타공연'과 젊은 댄스 그룹 '이인정댄스'는 플라워 페스티벌 개막 행사에서 공연을 펼친 이후 인기몰이 중이다. 광주시는 '뮤지움@태국' 프로젝트를 마무리되

면 '뮤지움'을 치앙마이시에 기부하고, 현지 작가 전시장이나 문화공간, 어린이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예술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예술을 매개로 아시아 청년예술가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 내일을 그려나갔으면 한다"며 "예술도시 광주의 예술자선이 지역을 넘어 아시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아과 적자, 국가 보상 전남대병원 등 전국 9곳 시범사업

정부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과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등으로 진료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중증 소아 진료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 참여 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받는다. 시범사업은 정부가 국경과제로 제시한 '공공정책수거'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학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친 9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울 3개소(서울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전북(전북대병원), 전남(전남대병원), 충남(충남대병원), 경북(칠곡경북대병원), 경남(양산부산대병원), 강원(강원대병원) 각 1개소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의료 자원을 갖춘다. 이중 전남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등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며,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채희종 기자 cae@

전남 '으뜸숲' 12곳 선정

'전남 방문의 해' 맞아 홍보

전남도가 오랜 세월 보존하고 관리해온 남도의 역사가 깃든 '으뜸숲' 12곳을 선정했다. '으뜸숲'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그동안 도내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숲을 널리 알리고,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자산이다. 22개 시군에서 대표 관광자원화 할 숲 44개소를 선정받아 역사성, 보전성, 대표성, 심미성 등을 고려해 월별·계절별로 12개소를 엄선했다. 선정된 으뜸숲은 1월 담양 명옥헌 원림 설경, 2월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 3월 구례화엄사 흑매, 4월 화순 환산정 원림, 5월 신안 대둔도리 당숲, 6월 화순 송석정 원림, 7월 신안 입자도 해송숲, 8월 법성포 숲쟁이숲, 9월 해남 녹우당 비지숲, 10월 영암 느티나무 노거수, 11월 강진 초당림, 12월 장성 축령산 설산이다. 봄철 으뜸숲인 구례 화엄사 흑매는 1702년 조선 숙종 때 심은 홍매화로 국보 제67호 각황전과 함께 화엄사의 명물이다. 화순 환산정 원림은 조선 중기 병자호란 의병장인 백전 류함 선생의 나라사랑의 숲이다. 신안 대둔도리 당숲은 천연기념물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한 제를 지낸 신성스러운 숲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단기비자 중단

5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화...항구 하선자도 PCR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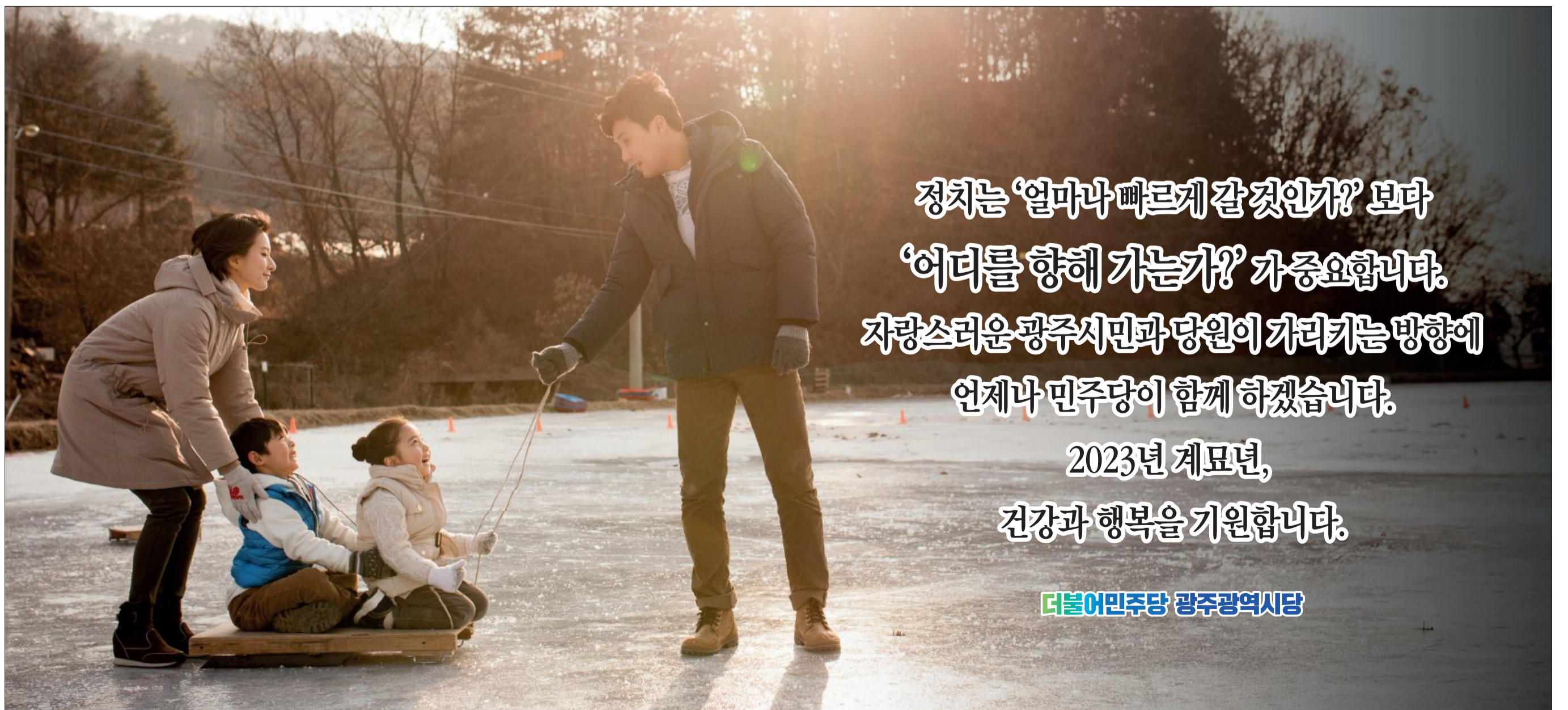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되며 입국자 모두 검역 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도 의무화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런 내용의 방역 조치를 취한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인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하게 된다. 정부는 광주·전남 등 전국 사·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 시설에 격리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다. 제주의 경우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중국-제주 노선은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입국하는 하선자도 마찬가지다.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5일

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오는 2-31일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한다. 한편 새해 첫날인 1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527명 늘어 누적 2911만 6800명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은 각각 1564명, 1843명 등 3407명이 새롭게 감염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금형' 박현·'전자기기' 안강훈 광주시 명장 선정...증서·현판 수여

광주시는 "지난 30일 박현 태경 대표, 안강훈 사론테크 부장을 명장으로 선정하고 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금형 분야 박현 명장은 태경을 창업해 성장시키고 고용노동부 '기능 한국인'에 선정되는 등 숙련 기술인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자기기 직종 안강훈 명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특화된 설계 능력을 보유해 2017년 고용노동부 '우수 숙련 기술인', 2019년 광주시 '기술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시 명장은 2013년 6개 분야에서 시작해 2019년 37개 분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22명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치는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인가?' 보다
'어디를 향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과 당원이 가리키는 방향에
언제나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